

# ‘수령 천년’ 구례 산수유 시목 종자 영구 보존

산동면 계척마을을 국내 최고 산수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저장

수령이 천년된 국내 최장수 산수유 시목(始木) 종자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 볼트(Seed Vault)’에 영구 저장됐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종자 영구저장시설인 ‘시드 볼트’에 구례군 산동면 계척마을을 산수유 시목 종자를 영구 저장했다.

구례 산수유 시목은 1000년 전 중국 산둥성에서 시집 온 여인이 가져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심었다고 전해지는 산수유다.

구례 산수유의 시조라고 해 시목(始木)이라 부른다. 계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산수유를 심었다는 설이 있다.

이번 종자 저장은 구례군을 대표하는 산수유 유전자원과 한반도 내 노거수 종자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 시드 볼트(Seed Vault)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외 야생식물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지하터널형 야생식물종자 영구 저장시설이다. 연중 항온 항습(영하 20도, 상대습도 40% 이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만 점 이상의 종자를 영구 보존할 수 있어 ‘종자은행’이라고 불린다.

구례군은 산수유 시목을 지난 2001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구례는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대표 군락지다.

구례군 야생화연구소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지리산 야생화 종자 보존 업무협약을 체결해 종자 보존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군은 지리산권 대표 자생식물인 히어리, 노고단 원추리, 깽깽이풀 등 300여종을 기탁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리산권 자생식물의 중요 종자가 보존될 수 있도록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국내 최장수 1000년 넘은 구례 산수유 시목이 지난달 6일 꽃을 활짝 피웠다. <구례군 제공>



## 곡성 기차마을 뚝방마켓 상인들 천변에 꽃 심으며 손님맞이 한창

곡성 기차마을 뚝방마켓 상인들이 코로나19로 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첫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꽃길을 조성했다.

곡성군은 기차마을뚝방마켓 조합원과 셀러 20여명의 재능기부로 뚝방마켓 목교 아래에 금계국 꽃길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기차마을뚝방마켓은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곡성군 플라마켓이다. 천변 유희부지를 재능과 문화의 나눔 장터로 변화시키며 지역 명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지난 3월 뚝방마켓을 개장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장 중이다.

셀러와 이용객들의 기다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차마을뚝방마켓 측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앉았다. 작은 손길을 모아 뚝방마켓 목교 아래 영운천변길에 금계국 꽃길 조성해 나갔다.

꽃길 조성은 원래 셀러, 주민, 관광객과 함께 뚝방마켓 개장 이벤트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은 참여하지 못했다.

곡성군은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 꽃길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오곡면 상동마을 등 4개 마을에 각각 800만원씩 지원해 꽃길을 조성한다. 지난해 조성한 마을 꽃길 8개 구간은 유지보수비 200만~400만 원을 지원해 특색있는 마을 꽃길을 유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고흥군수협 ‘착한임대인’ 동참 83개 점포 4개월간 20% 할인

고흥군수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상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고흥군수협은 수산물유통센터 등 3곳에 입주한 들에게 지난 2월부턴 다음달까지 4개월간 임대료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홍재 조합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대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 인하를 결정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보성군, 600개 마을에 600가지 색 입힌다

전국 첫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추진 내년까지 권역별 30억원 투입 ‘산수유 거리’·‘무궁화 동산’ 등 조성

보성군이 600개 자연마을에 특색에 맞는 마을 색을 입힌다. ‘보성 600’ 사업이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역점 시책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인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300개 마을이 참여하며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내년에 전체 마을로 확대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같은해 11월 이장단·사회단체장이 함께 모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선포식도 개최했다.

권역별로는 ▲보성읍, 산수유로 물들이는 거리 ▲별교읍, 의병의 고장 무궁화 동산 ▲특량면, 구절초 피어나는 추억의 거리 ▲율어면, 살구꽃 피는 마을길 ▲조성면, 저수지 주변 홍매화 거리 ▲회천면, 차나무 가로수길 ▲웅치면, 메밀꽃 마을 조성 등이다.

보성읍은 동운1·2동에 꽃모종을 식재해 아름다운 소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3·1만세운동 현장인 옥암리 예동마을과 원봉2리 하정마을은 마을 특색을 살려 무궁화나무를 식재했다. 신흥2동은 철로 옆 공터에 황금사철을 심어 마을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 구절초 피어나는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는 특량면은 67개 자연마을 중 36개 마을이 보성600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성군이 역점 시책으로 600개 자연마을에 600가지 색을 입히는 ‘보성 600’ 사업을 추진한다. <보성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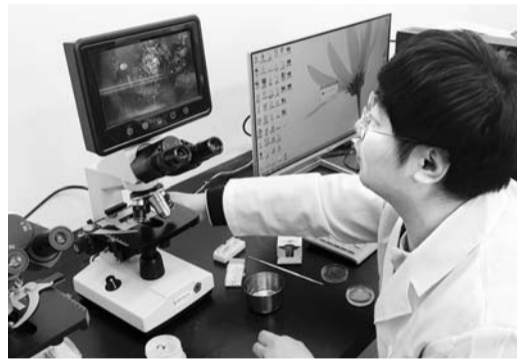
박실·덕산·중산마을은 마을동산에 구절초 공원을 조성하고, 대전마을 오매정과 강골마을 열화정, 마천마을 연못에는 연꽃과 부레옥잠을 띄워 전통 연못의 옛스러움을 더한다. 마천리·정월리·역전마을 진입로에는 꽃양귀비 꽃길을 조성하고, 대보동로·삼정리·송곡리에는 코스모스 꽃길을, 파청·석장마을에는 두릅나무 등 소득작목을 심는다.

보성군은 이 사업을 통해 소통·참여·협력하는 마을단위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 주도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 마을공동체

부활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600 사업은 나의 삶의 터전을 이웃과 함께 가꾸면서 마을 공동체가 부활하고 활력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다”며

“아직은 기초 단계지만 점진적으로 마을 공동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꽃가루은행에서 참다래 발아율 검사를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참다래 꽃가루은행 운영 작과율 높여 당도·상품성 등 향상

고흥군이 참다래 개화기를 맞아 4월부터 6월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참다래는 바람·곤충 등 자연수분에 의한 작과율이 낮아 인공수분이 꼭 필요한 과수다.

인공수분을 하면 꽃이 필때 날씨가 나쁘거나 수분수가 부족할 때도 결실이 좋고, 과실의 품질·당도가 높아지는 등 상품성이 향상된다.

인공수분 지원을 위해 고흥군은 지난 2003년부터 참다래 꽃가루은행을 운영, 매년 250여 농가가 이용하고 있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 꽃가루 채취 작업실과 화분정선기 등 주요장비 13종 32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방문해 받아올검사, 꽃가루채취 등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공수분 후 남은 꽃가루는 이듬해 기상재해에 대비해 꽃가루은행에 냉동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다음해 인공수분에 활용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